

크로스오버 디자인 연구 - 확대와 과장을 중심으로 -

양 속 희* · 김 미 현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전공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패션디자인전공

오늘날 국제화, 다양화, 다원화 현상으로 각 문화영역들이 상호 교류하면서 크로스오버라는 새로운 문화 현상이 나타났다. 서로 다른 장르가 만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동·서양 복식에 나타나는 힙에 대한 확대와 과장의 크로스오버 연구는 다양한 의복구성과 미의식에 대한 새로운 해석 방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복식에서 힙의 확대와 과장의 의의와 그것에 내재된 조형미들 크로스오버의 공간적·시간적 관점에 맞추어 고찰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범위와 오브제로서 19세기 한국의 풍속화와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품에 나타나는 기너복과 버슬스타일을 연구하였다.

첫째, 크로스오버는 이종교배, 장르간의 벽을 넘나든다는 의미로 영역이나 장르의 경계를 없애고 타 장르와 합일을 통해 새로운 문화나 장르를 만들어낸다.

복식에서 크로스오버는 기존의 영역을 넘어서 서로 교류하는 것, 즉 이질적이고 서로 대립되는 요소들이 하나의 묶 안에서 공존함으로써 새로운 스타일을 창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복식조형에서 확대와 과장의 의미는 인체의 외곽선을 공간적 또는 시각적으로 돌출시키고 부피를 확장시켜 신체의 자연스런 곡선을 왜곡시키거나 일상적·보편적 개념의 복식 구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조형적 특징을 통칭한다.

그 중에서 특히 힙 부분에 대한 확대와 과장은 관능적인 아름다움과 성적 매력을 느끼게 하는 인체 부위로써 이것은 주로 스커트의 실루엣 확장으로 나타나며 스커트 속의 허리 부분에 구조물을 만들어 착용하여 과장된 스커트를 등장시켰다.

셋째, 기너복과 버슬스타일은 동·서양 복식에서 힙의 확대와 과장적 특징이 잘 나타나는 복식으로, 기너복은 상체에 밀착된 저고리를 착용하고 하의로는 치마 속에 여러겹의 속옷을 착용하여 하체의 풍성한 실루엣과 속옷이 보이도록 착용함으로써 성적 매력을 표현하려 하였다.

버슬스타일은 인체의 특정부위를 변형, 과장하여 성적 매력을 발산하고자 하는 복식으로 코르셋을 착용하여 가는 허리를 강조하고 힙 부분에 버슬을 착용하여 후방을 돌출시켜 힙을 강조하고 트레인을 길게 연장하여 여성미를 극대화 시켰다.

넷째, 기너복과 버슬스타일의 조형적 특징은 이미 완성된 형태로 발전의 포화와 정체상태

에 있다. 이러한 이미지들을 혼합하여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해내는 공간적·시간적 형태의 크로스오버는 하나의 가능성 제시라 할 수 있다.

공간적인 요소의 융합은 동양과 서양의 만남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프랑스라는 문화권이 그 예로 제시되었으며 양자간을 통합하는 창조적 관점으로 전환하려 하였다. 그리고 시대적 양식의 융합은 복고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과거의 양식이 현재의 인간 감정과 정서 그리고 시대상에 어울리게 재정립하여 새로운 양식으로 탄생되는 것으로 시간의 차이를 극복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복식사적 고찰과 이를 바탕으로 현대복식의 흐름파악과 비교분석을 통한 실제 작품의 디자인 특징은 실루엣, 내부 구성선, 디테일 등에서도 이중결합을 시도한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디자인 컨셉인 힙을 강조한 실루엣을 새롭게 구체화시키는 것이 본 디자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힙을 강조한 실루엣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확대·과장된 의복구성 외에 외형을 완성해 줄 수 있는 구조물이 필요하다. 이것은 기너복과 버슬스타일에 나타나는 힙을 강조한 확대·과장형 복식형태에 따른 크로스오버 디자인의 실루엣을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에 쿠션형식과 페티코트 형식의 2가지 유형으로 제작하였다.

작품에 사용된 모티브는 신윤복과 최라의 그림으로 19세기 기너복과 버슬스타일이 나타나는 대표적 고찰 도구였다. 이에 각 작품의 상의와 트레인에 그림을 부분적으로 배치시켜 의상에서 당시의 화풍을 감상할 수 있도록 관점을 전환시키고 작품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모티브 제작방법은 텍스타일에 도입된 DTP(Digital Textile Print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기너복과 버슬스타일의 조형적 특징에서 힙의 확대와 과장이라는 모티브로 이끌어낸 공간적·시간적 형태의 크로스오버 디자인을 상기 제작과정을 통해 디자인 완성 단계로 이끌어 내었다.